

세계수영대회 경기장에 CCTV 193대 설치

출전 선수·시설 보호... 범죄 발생시 신속 대응 선수촌·미디어촌 등... 마스터스 대회 이후 철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수영대회와 마스터즈대회 기간 경기장 등에 193대에 이르는 CCTV설치하고 물샐 틈 없는 경비에 나선다.

범죄나 안전사고로부터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와 임원, 관중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대회를 '범죄와 안전사고 없는 대회'로 치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수영대회가 열리는 경기장 7곳과 선

수촌·미디어촌에 CCTV 193대가 설치·운영된다.

대회 출전 선수와 경기시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이자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이다.

CCTV는 24시간 촬영·녹화되며, 마스터즈대회가 끝나는 8월 18일 이후 모두 철거된다. 수영대회조직위는 CCTV관련 업체로부터 기기를 입찰해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 장소와 대수는 남부대 시립국제수

영장(경영·다이빙) 39대, 남부대 축구장(수구) 25대, 국제방송센터(IBC·남부대) 12대, 영주종합체육관(아르스탁스위빙) 25대, 조선대(하이다이빙) 26대, 여수엑스포해양공원(오픈워터) 24대, 영주수영장(훈련장 및 마스터즈 경영) 10대이다.

선수촌과 미디어촌이 머무르는 선수촌과 미디어촌에도 32대의 CCTV가 설치·운영된다.

수영대회 경기장, 선수촌·미디어촌에 설치될 CCTV 규모는 시인·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여지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CCTV 설치 주체(수영대회조직위)는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하고,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수영대회조직위는 관련법에 따라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홈페이지(www.gwangju2019.com)에 지난 4일 '수영대회 안전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접수받는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세계 200여 개국에서 선수단과 임원 등 4000여명, 미디어 인력 2000여명 등 모두 6000여 명이 광주를 찾는다. 마스터즈 대회(8월 5일-18일)에 출전하는 아마추어 선수 등 관계자도 60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허블레아니호 인양에 투입되는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이 5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우이페쉬트 선착장에 정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헝가리 유람선 침몰 9일째... 선체 인양 언제쯤

사고지점 5.5km 정박... 수위 낮아져야 다리밑 통과

헝가리 부다페스트 도심의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 등 총 35명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 호가 침몰한 사고가 일어난 지 9일째인 6일(현지시간) 선체를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주목된다.

헝가리 당국은 전날 선체 인양을 위해 동유럽 최대 규모의 수상 크레인 '클라크 아담'을 침몰 현장에서 5.5km 떨어진 지점까지 강을 따라 이동시킨 뒤 선착장에 정박시켰다. 클라크 아담은 최대 200t가량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높이 50.95m, 길이 48.95m의 대형 크레인인

으로, 헝가리가 보유한 수상 크레인 중 유일하게 허블레아니 호를 인양할 수 있는 장비다.

강물이 더 빠져서 두 다리 밑을 크레인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되면 낙하차량이 1시간 정도면 사고 지점의 인양 포인트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클라크 아담은 사고지점 바로 위의 머르기트 다리 아래를 통과한 뒤에는 침몰 선체의 남쪽 끝부분으로 돌아 들어가 수중의 선체를 체인으로 고정해 들어 올리게 된다.

그러나 헝가리 당국이 인양 개시 시점으로 잡은 이날 강의 수위가 현재보다 30cm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면 인양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초 헝가리 정부의 인양 목표는 이른바 5일 인양을 시작해 9일까지는 인양을 마친다는 것이었다.

선체의 어디에 거느냐 하는 문제도 관건이다. 헝가리와 한국의 잠수 요원들은 크레인의 이동과 별개로 선체 인양을 위한 기초 작업인 체인과 로프를 통한 선체 결박 작업을 이미 개시했다. 잠수사들은 5일 오전 9시 21분께 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고 지점 수중에서 유람선 사고의 실종자 시신(60대 한국인 남성) 1구를 수습했다. 이어 오후 3시 40분께에도 선체에서 떠오른 시신 1구를 대기 중이던 경비정이 발견해 수습했다. 이 시신 역시 실종된 한국인 여성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9일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 호에는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2명 등 35명이 타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한국인 사망자는 13명이고 실종자도 13명(이 가운데 시신 2구는 신원 확인 중)이다.

/연합뉴스

국민 7명 중 2명은 '교통약자'... 고령자 50%

여객선·버스정류장·터미널 시설 이용 가장 불편

국민 7명 중 2명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로 조사됐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 임신부 등으로 구성된 이들 교통약자는 여객선, 버스정류장·터미널시설 이용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인구는 전체의 약 29%인 1509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약 26만명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765만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0%)을 차지했고 어린이(21.9%), 영유아 동반자(16.0%), 장애인(17.1%), 임신부(2.2%) 순이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전년과 비교해 고령자는 4.0% 증가했고, 임신부는 8.6% 감소했다.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은 평균 69.4%로 조사돼 2년 전보다 2.1%포인트 개선됐다. 이는 점차블록, 보도 턱 낮추기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의 세부 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교통수단별 적합률은 철도(98.6%)가 가장 높았고, 버스(86.7%), 도시·광역철도(79.6%), 항공기(69.7%) 순이었다.

다. 여객선(34.3%)은 10년 넘는 노후 선박이 대부분이다 보니 가장 낮았다.

여객시설별은 공공기관 관리 비율이 높은 도시·광역철도 역사(83.2%)가 가장 높았고, 공항(82.3%), 철도역사(81.9%), 여객선 터미널(79.3%) 순이었다. 민간이 관리하는 버스터미널(60.9%)과 관리대상이 많은 버스정류장(32.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 1년간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종합 만족도는 67.0점으로 2년 전(61점)보다 6점 상승했다. 이동편의시설 별 만족도는 여객시설 72.2점, 교통수단 66.6점, 도로(보행환경) 63.3점이었다.

교통수단 중에는 도시·광역철도(72.0점)가 가장 높고, 철도(70.7점), 항공기(69.2점), 고속·시외버스(65.9점), 시내버스(65.2점), 여객선(56.9점)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와 교통사업자 등에 통보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휠체어 이용자의 시외 이동권 확보를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시, 외국인 의료관광객 안심케어 구축 방안 추진

광주시가 외국인 의료관광객 안심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환자가 광주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할 경우 사전에 광주시와 협약된 보험사가 체제비를 지원하거나 보상비를 지급하는 체계를 마련, 의료관광 활성화를 노린다는 구상이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달 말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를 통해 DB손해보험과 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광주지역 병원 40여 곳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다가 상해·후유 장애 등을 입은 외국인 환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대 5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국비 900만원을 지원받아 보험을 체결했다.

보험기간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

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배상책임을 부담, 손해를 입은 경우도 최대 1000만원 보장된다.

해외 의료관광객 사전상담 및 진료예약→관내 의료기관, 진료 1일 전 보험사 통보→의료사고 발생시 배상책임 및 체류연장 비용 지원 체계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체류연장 비용도 최대 100만원 지급하는데, 성형외과 분쟁은 제외된다. 병원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일시 지급하고, 사보험 등과 중복보상도 가능하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외 의료관광객 대상 안심케어 시스템 구축으로 광주의료관광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지역 의료관광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임야

- ▶ 남구, 덕남동 산, 도로접함
- ▶ 992㎡(300P), 지분 매매
- ▶ 기획 부동산 물건 아님
- ▶ 도서지역, 자연농지, 그린벨트
-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 ▶ H.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게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임야 단독섬

- ▶ 바로삽니다
- ▶ 지분물건 환영
- ▶ 단, 맹지는 매입 불가

문의. 010-6834-7400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인 풍수와 사주,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 개 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19. 7. 2(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 공개강좌

- 일 시 : 2019. 6. 25(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정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상어,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임야 매매

화순군 도곡면 신덕리
산 55, 55-1, 54번지
20,493㎡ 17억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산 95, 95-3
51,475㎡ 23억

010-8443-5165

개인 직거래